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1월 2일 (제 1330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그럴 수 있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뉘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가 다 도와줬습니다. 자금줄도 내주고 판로도 개척해주고~~, 그런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상담을 하면 열에 여덟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로 시작한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뉘통수를 맞았는데요, 뭘. 나도 공부시켜 목사를 만들어주고 교회도 세워주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수처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지요. 그러나 털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나만 병나니까요. 집사님도 털어버리세요.”

또 다른 경우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저를 낳았는데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어미인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르는 개에게는 옷도 사 입히고, 유기농 음식도 먹이면서 어미인 나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구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다윗도 자식에게 쫓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식이라고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을 격정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안 그러면 병납니다.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생고생하면서 가정을 일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바람을 피다니요.” 여전히 내 답은 ‘그럴 수 있다’이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말세의 징조가 눈에 확연하다. 그 현상이 나에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랴. ‘그럴 수 있지!’ 생각해야지, 그걸 탓하면 나만 앓아 눕지 않겠나. 그 상황을 붙들고 있는 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는 것과 같고, 떠난 물고기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니, 그것에 힘 빼지 말고 호흡을 길게 하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하라. 평안이 올 것이다.

가자, 장성 기도원으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코어게임에서 상대가 강하거나 혹은 그날의 컨디션 저하, 팀워크 난조 등으로 상대에게 끌려가는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게임을 포기해버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점이라도 더 따라붙거나 영패를 면하기 위해 혼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패하더라도 다음 경기가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다는 정신무장으로 마치는 것과 좌절과 의욕 상실로 무너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뜻하고 계획했던 것이 생각만큼 잘 안되었다고 주저앉으면 다음이, 미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예로 드시는 골프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이 홀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음 홀이 또

러 애쓰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복음을 향한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 열정이 사그라들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와중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외치지 않던가요? 올해도 두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계산상집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원집회를 통해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고, 병을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영·혼·육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월, 화, 수, 목 나흘간 하루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아버지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품에서 마음껏 울고 웃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그 무엇이든 다 해결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쁠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55:1~2).

나흘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어지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최선을 다해봐도 이번 경기는 망했어!’ 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음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엘살바도르(El Salvador) 집회에서 보여주신 정신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도전적인 자세로 무장하고 빗속에 몸을 던지시지 않던가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길을 찾으

표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활활 타고 있는 용광로이기에 아무리 날 장작이라도 불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올 한해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안됐습니까? 병에 걸려 고통 중입니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좌절하고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령충만을 잃었습니까? 기도원으로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잔치에 가면 돌아온 탕자가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할 꿈과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산집회를 통해 교단적 에너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동참하면,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성취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시듯이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일부터 추계산상집회가 장성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 성산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 * 날짜 : 2025년 11월 3일(월)~6일(목)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9:8~9)

광고하지 않으면 알 자가 없다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추계산상 집회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상 침구류를 지급하지 않으니 각자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산상집회를 앞두고 예배 때마다 사회자가 이렇게 광고합니다. 광고를 해야 ‘아~ 추계산상집회가 있구나. 미리 시간 조정을 해야겠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무엇이든 광고하지 않으면 알 자가 없습니다.

광고와 성공은 정비례한다

광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첫 장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광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통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1:26~27)고 광고했고, 마침내 광고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광고하셨고,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고를 하실 때 광고전략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면서 광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시네.’ 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행2:22). 이 소문은 당연히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광고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 광고가 이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왜요? 광고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계심과 천국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광고전략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사 당신이 하신 일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내가 아버지

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나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그 능력으로 나처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광고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이 나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천국을 광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광고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마28:19~20). 저는 예수님의 광고전략 그대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 전에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아논고는 제시간에 TV나 라디오, 혹은 신문이나 옥외광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소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넘치게 광고료를 받은 셈입니다. 슈퍼볼 때 광고료가 초당 1억이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광고해야지요. 광고하지 않으면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죄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33:7~8)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광고와 소문이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광고에 주력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세일즈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누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11월에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를 앞두고, 광고에 전력 매진하라고 이현숙 선교사에 명했습니다.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험이 바로 지난 엘살바도르 집회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십니까? 못 가게를 하십니까? 떡볶이 가게를 하십니까? ‘이런 작은 가게를 누가 광고하냐?’ 하지 말고, 광고하세요. 현수막이라도 걸어보세요. 입소문이 나게 주변에 잘해보세요. 반드시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성공하면 다 광고하게요?’, 이런 분과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9:8). 광고와 성공은 정비례합니다. 기업도, 장사도, 교회도 광고하여 성공을 거둡니다. 더욱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지라”(요4:39) 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광고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16:17~18)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광고 전략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벧전3:1). 네 친구가, 네 동료, 네 이웃이 너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고로 소문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는 법 아닙니까?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간다면, 발 없는 말이 저 태평양 너머까지 이를 것입니다. 본시 음식점 소문은 단골손님이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골손님, 곧 자주 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고판이요, 전도 매체니까요. 여러분, 광고회사에서 광고료를 미리 받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디지털 통화 시대, 금의 역할은 끝났나?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실물 금 거래 시장인 Shanghai Gold Exchange(上海黄金交易所, 이하 SGE)를 설립하며 금 중심 통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3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여 세계 최대 금 매수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PBOC는 실물 금을 직접 예수(豫受)하지 않더라도, SGE에서 인증한 특수보관창고(security warehouse)에 예치된 순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지리적 제약 없이, 즉 위안화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 주요 전문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또한 금의 금융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보유한 금의 장부상 인정가치를 시가 기준 50%까지만 허용해왔으나 2025년 7월부터는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괴는 예금이나 미국 국채와 동일한 최고 수준의 유동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금의 역사적 변동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60년 이상 활동해온 일부 자산관리인들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1970년대 말까지 금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급격한 매도세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사례를 드는데, 이는 금이 반드시 안전자산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순금은 약 36,700톤이며, 민간이 소유한 금은 최소 173,300톤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매년 약 3,000톤의 금이 새롭게 채굴되고 있어 공급 확산에 따른 희소성의 가치 하락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편,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디지털 데이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굴이 아닌 코딩을 통해 생성되며, 신뢰에 기반한 자율적 교환이 아닌 기술적 규범에 따라 통제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의 상징이었던 경화(硬貨)의 효력은 점차 소멸되고, 이제 금 중심의 통화제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각국의 법정통화와 디지털 통화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리플사의 XRP 시스템 등 다양한 코딩 기반 통화 시스템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달리는 경화 기반 통화를 압도하는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진화를 넘어 완성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흐름 속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미래를 향한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할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화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임윤석

:: 신앙논객 ::

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광복 80주년 대기 확으로 가왕(歌王)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큰 획을 그은 조용필 씨의 공연을 특별기획으로 내보냈다. 소싯적에 가요 프로그램을 예약 녹화까지 해가면서 챙겨보던 적이 있었기에 무심결에 영상 몇 개를 찾아보았다.

1950년생으로 올해 나이 75세인 그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1만 8천 명이 운집한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무려 2시간 반 동안 게스트도 없이 28곡을 완벽하게 불렀다. 영상의 댓글에는 여러 찬사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반응은 ‘75세에 저렇게 변함 없는 기량과 저런 무대매너가 어떻게 가능할까?’, ‘클래스는 영원하다. 가왕의 폼은 여전하다’였다.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그 폼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기서 폼(Fom)은 기량이나 자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뜻한다고 한다. 인터넷상으로 ‘폼 미쳤다’, ‘폼이 올라온다’, ‘폼이 죽었다’ 같은 말들이 종종 쓰이는데, 20세에 데뷔한 가수가 무려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 실제로 조용필 씨

와 함께하는 밴드팀 멤버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한다. 아침 일찍부터 연습실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큰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연습 전에 미리 멤버들에게 ‘너네 링겔 한 대씩 맞고 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연습량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공연 때마다 곡들을 새롭게 편곡해서 올린다고 한다. 그동안 부른 히트곡만으로도 공연 시간을 채우기에 충분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그저 현상 유지만 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목사님께서도 사역의 폼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 없이 집회 일정을 소화하시며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신다.

지금 당신의 신앙의 폼은 어떠한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이 무뎌지고, 기도 줄이 안 잡히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다면 신앙의 폼이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 이번 추계산상집회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신앙의 폼을 끌어올려 보자!

신혁주 전도사

두 얼굴의 사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기의 걸작이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다빈치에게 의뢰한 어느 수도원장은 도대체 그림이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서 다빈치를 찾아가 성질을 내며 물었다. “다빈치씨,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다빈치는 수도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수도원장님, 저는 모든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바로 두 사람의 모습만은 그림 수가 없어 고민입니다.”

“아니, 그게 누구데요?”

“바로 예수님과 유다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

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탐욕과 배신의 모습을 한 유다의 얼굴 또한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재촉하러 오신 수도원장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원장님 얼굴에서 두 얼굴을 다 봅니다. 꺾꺾...”

이 말을 들던 수도원장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두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종종거리는 걸음을 걸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말하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일 유다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겠는가?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다. 당신의 얼굴은 어떠한가? 당신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가, 아니면 유다?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강물에 비친 달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한번 발을 담근 강물은 이미 흘러 지나갔고, 계속 또 흐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지 않는다. 마치 화살처럼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분간하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다(눅12:56).

우린 지금 초스피드 발전시대를 살아간다. 이젠 더 이상 AI(인공지능)시대 이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에, 말과 경쟁하러 말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려야 한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최첨단 인쇄기술을 활용했기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 당시 시의 회라는 최고 권력 위에 올라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데 19세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펔전이 사역하던 세계 최대의 교회는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시대, 사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말 위에 올라타 빠르게 시대에 편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강물은 아무리 급하

게 흘러도 강에 비친 달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진리는 고정불변이다. 그래서 흐르는 물의 시류를 읽고 몸으로 부딪치며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달을 바라봐야 한다. 변화의 혼돈 속에서도, 불변하는 진리를 갈망해야 마침내 승리한다.

최근 일산에서 열린 개신교 초교과 청소년 부흥집회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15,000명이 운집하여 하루 10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려서 화제다. 참석자의 80% 이상이 30대 이하였다는데 관심이 쏠렸다. 범람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며 살기에 가볍고 간단하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세대인 듯하나, 도리어 깊은 내면에선 영적 본질을 갈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MZ세대들을 위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의견이 분분하다. 사도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었다고(고전9:22) 말한다. 흐르는 강물에 속도를 맞추나,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 표류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송지화 목사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어느덧 청년 때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져 고민한 적이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시 일하려고 하면, 그때는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보내고, 아이 하원 시간까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 깨달은 것은 가정 형편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짝 나는 시간에 일하기보다는 엄마가 휴식을 잘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좀 벌지언정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힘들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보낸 후 잠시 생기는 혼자만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운동 시간으로, 공부 시간으로 잘 활용하니 나의 영·혼·육의 건강에 더욱 유익하였고, 그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일해서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자존감을 위해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일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돈을 벌려는 거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또 청장년부 팀장으로 하나님 일을 더 하면서, 운동도 하고 체력을 키우라고 했다. 청장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언니도 내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언니의 10년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없는 일자리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서 기도하면 분명 기회는 온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간을 늘리고, 큰맘 먹고 수영 레슨과 PT를 받으며 건강관리도 하였다. 청장년부에서 맡고 있는 팀장 직분에도 좀 더 집중하였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느껴졌다.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잘 되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친구들도 볼 여주셨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하는 우편업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알게 되었다. 서울시가 경

력단절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이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지원금을 주는데 ‘서울우편업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돼서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예: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육아의 시간, 쉼의 시간, 그리고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힘을 준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조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해보자고.

정효경 집사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 전 운영하는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일이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않고 순간순간 가슴이 철렁대곤 했죠. 함께 일하는 동업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저를 또 깊은 연단의 단계로 보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런 일 기억해주세요. 저런 일도 또 기억해주세요. 이번 일도 잘 해결되면 나중에 꼭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더욱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행히 그 문제가 갑작같이 잘 해결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난 것 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하는 사람들, 건물에 십자가를 걸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건물도 따로 없고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회사라 홈페이지만 있었거든요. 고민하다 ‘홈페이지 이름 옆에 십자가를 디자인해서 넣자, 이게 우리 얼굴이니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해서 몇 달 전에 완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생겼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자랑하니 하나님이 회사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며 늘 감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

기도의 부족은 뜻밖의 부족이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아름다운 인생

수년 전, 장성 기도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교회 전도사인 어머니의 교구에 소속된 한 집사님이 그를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뇌경색으로 언어 장애와 편마비가 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고,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데리고 왔던 그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도님을 심방하러 어느 요양병원에 갔다가 환자복을 입은 그와 우연히 마주쳤고, 어머니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그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수 소문 끝에 어렵게 그의 형과 연락이 닿았지만, 그의 형도 그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그가 한참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치과 진료를 위해 특별히 외출을 허락받고, 어머니가 그를 차에 태우고 지나가던 길에 잠시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서면서 불편한 몸으로 어린이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언제라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지만,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머니를 만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를 집에서 돌보게 되었고, 이후 어린이의 지능을 지닌 지적 장애인을 한 분 더 모셔와서 두 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돌보고 계십니다.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여러 번 목욕시켜야 할 때도 있었고, 한 분은 당뇨가 있는데 스스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여 특별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나간 후 들어오지 않아서,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몇 차례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간 그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살려내기도 했으며, 두 분 모두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기까지 모든 치료과정을 보호자로서 함께 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이나 기도원에서 그분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모습에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솔직히 글로 다 쓸 수 없는 부모님의 고생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걱정이 앞섰던 저의 마음과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심방하셨던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부모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해주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34~40).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아 걱정이 앞섰던 부모님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에게 부모님의 삶이 어떠하냐고 지금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의 한 조각을 채워나가고 계신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 재능, 건강,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명관